

“놀이터 되어주는 연극,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죠”

교사에서 아동극 전문배우로 제 2 인생... 곡성출신 극단 '마실' 손혜정 공동대표

“요즘 아이들은 친구가 있어도 외로워해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타인과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해야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 관객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대화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서울 필동 남산국악당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참여형 가족극 ‘달려라 달려 달달달(수수께끼 향아리)’이 열린다. 극단 ‘마실’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나라가 전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배우와 관객이 어우러져 무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작가이자 배우로 무대에 오르는 손혜정(여·40) 공동대표는 관객들과 ‘즐거운 놀이관’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잊지 않았다. 그

녀는 무대를 준비하느라 힘들지만 세 아이의 엄마로서 어린이 관객이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엄마’였다는. 자신을 ‘엄마배우’라고 말하는 그녀는 지난 2006년 극단 마실을 창립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곡성군 삼기면 작은 시골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다. 결국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었지만, 자신이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교사를 그만뒀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하며 배우가 됐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보람있는 일예요. 그렇지만 무대 위 배우로서 아이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는 걸 간절히 바랐던 만큼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처음 아동극을 시작할 때는 극단도, 무대도 없이 배우 손혜정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관객을 만나기 위해 유치원과 놀이터를 직접 찾아갔다.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 난처한 상황도 많았다.

“유치원에 다니며 혼자 아동극을 할 때였어요. 악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무서워하며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어요. 공연을 멈추고 평평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 날 밤 아이를 울린 미안함과 배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새벽까지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울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관객이 악당을 혼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 어린이 관객들이 큰소리로 악당을 혼내주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는데 반응이 훨씬 좋아졌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아동극 배우로 나선 지 10년. 그녀는 문화랑 ‘영

흔을 위한 밥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배고픔은 해결 했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시대를 겪고하면서도 엄마와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연에 주목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2세 이하 유아들을 위한 작품을 2년 넘게 걸려 만들었지만 관객과 무대가 없어 일본에서 펼쳐야 한다는 사실을 개탄했다. 또한 친정집이 있는 광주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공연을 펼치지 못했다며 지역에 있는 관객들에게 꼭 한번 선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세열기자 hot@



정다운새마을금고, 우수회원·사원 표창



정다운새마을금고(이사장 장영태) 제37차 정기총회가 최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문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려 우수회원 및 사원 등에게 표창했다.

(정다운새마을금고 제공)

장성경찰, 중·고교서 ‘올바른 졸업식’ 캠페인



장성경찰(서장 노규호)은 12일 장성중학교와 장성실업고등학교에서 노규호 서장과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올바른 졸업식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완도경찰, 완도읍 염수마을 직원 관사 준공



완도경찰(서장 니원호)은 12일 완도군 완도읍을 기울여 염수마을에서 김종식 완도군수와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직원 연립관사 준공식을 열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광주일고 항일투쟁 역사, 84년만의 졸업장

故 허창두 씨, 명예졸업장

일제시대 동맹학교를 주도하다 광주고보(현 광주일고)에서 퇴학당했던 고(故) 허창두 씨가 84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광주제일고등학교(교장 양정기)는 1928년 식민지 노예교육 거부와 민족해방을 위해 동맹학교를 주도하다 이 학교에서 퇴학 처리된 고 허창두 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졸업장은 아들에게 대신 전달됐다.

동맹학교는 1928년 4월 항일 전단을 인쇄해 뿐만 아니라 이유로 광주고보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구속된 것이 기폭제가 돼 같은 해 6월 26일로부터 10월까지 광주고보 2·3·4·5학년 학생이 등교를 거부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조선인 교사 채용, 조선역사 교육, 조선어시간 증설, 도서실 조선 서적과 신문 비치 등을 요구했다.

5개월에 걸쳐 학생, 학부모, 졸업생이 함께 투쟁을 전개했지만 일제 당국의 폭압

으로 중단됐고 광주고보 학생 1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39명이 주모자로 퇴학당했다.

당시 5학년이던 허씨도 휴학 투쟁을 주도했지만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는 제주도에서 광주고보로 유학았으며 퇴학당한 후 일본 오사카로 이주해 연락이 두절됐다.

학교 측에서는 해방 이후 당시 퇴학당한 학생 등 독립유공자를 찾아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으나 허씨와는 연결되지 않아 지금 까지 졸업장을 줄 기회가 없었다.

지난해 3월에야 이 학교 동문들에게 일



본에 거주하는 허씨의 아들이 연락을 했고 이번에 명예졸업장을 주게 됐다.

양정기 광주일고 교장은 “84년이라는 짧으나 오랜 시간 끝에 이미 고인이 됐지만 허창두 씨에게 졸업장을 드리게 돼 기쁘다”며 “그분의 학생운동 정신과 의지를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대 배소연씨, 스마트 디자인 캠프 ‘대상’

조선대학교 배소연 학생(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이 ‘2014 스마트 디자인 캠프’에서 대상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후원하고 서울과학기술대 공학교육거점센터와 선문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한 ‘2014 SMART Design Camp’은 최근 전국 20여개 대학에서 남학생 51명, 여학생 29명 등 총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문대에서 열렸다.

수상작 ‘안심보’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홀로 남은 아이들이 찬밥을 먹지 않도록 전통적인 밥상보를 응용해 밥상의 온도를 유지하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한국기자협, 내달 8일 ‘언론인 마라톤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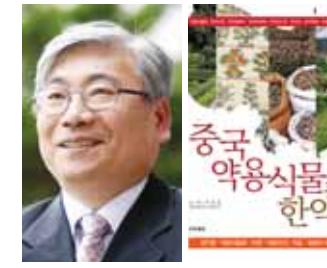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오는 3월 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광장 앞에서 ‘국민과 함께 달리는 전국 언론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기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5km, 10km, 하프 등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하프 구간에서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참가해 함께 달릴 예정이다.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www.journalis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500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하며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완주메달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임세열기자 hot@kwangju.co.kr

순천대 박종철 교수, 中 한약 연구 책 발간



박종철(59·한약자원개발학과) 순천대교수가 국내 최초로 중국의 약용 식물원과 한약 시장, 한의약대학 등을 소개하는 책을 폈다.

박 교수는 한약에 대한 전문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근 ‘중국 약용식물과 한약’ 책자를 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자는 박 교수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중국의 약용식물원 17곳, 한약시장 8곳, 한약 재배지 19곳, 한의약대학 4곳, 한약전시관 3곳 등 중국 각지의 60여 한의약 시설을 탐방해 약용식물을 비롯한 한약 자료를 직접 활용한 1000여장의 생생한 사진을 곁들였다.

박 교수는 “중국의 약용식물원, 한약시장, 한약재배지, 한약전시관, 한약축제를 종합 정리한 안내서로는 국내 처음”이라며 “관심 있는 전문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약과 함께 김치 전문가로서 순천대 김치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10여권의 김치 관련 책자를 폴펴기도 했다.

/순천=김은경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대 -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현종)와 담양군(군수 최형식) 12일 담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담양군에서 충진종인 명품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 자문 및 컨설팅 지원, 담양군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최남인씨 차남 신천준군 김재오(덕선봉사회 회장)·김종숙씨 차녀 은지양=15일(토) 낮 12시 30분 JS웨딩컨벤션 3층 티아모홀.

▲윤영민(해남 법무사)씨 장남 선희군 김용시 장녀 국원양=15일(토) 낮 12시 휴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

▲장창호(건설업)·김금숙씨 아들 경환(전통건축연구원)군 민종기(도의회 의원·정의당 의원)·이정옥씨 딸 청미(한국문화재연구원)=15일(토) 낮 12시 40분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1층 샐러드.

▲최림열(천도교 광주 교구장)·이순애씨 장남 성권(자영업)군 정형운·진이남씨 사녀 연주양=16일(일) 오전 11시 아름다운 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이철수·최순분씨 장남 경민(교사)군 류재선(광주남부경찰서)·곽중남씨 장녀 하나(교사)씨=16일(일)

종친회

▲경주배씨 광주 종친회(회장 종용)월례회의=13일(목) 오후 6시 심심한 민여회관(현대예식장) 길 건너편 광주 동구 대인동) 010-3604-8843.

▲(사)전주이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원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철환)=18일(화) 오후 7시 010-3601-142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인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652-7374.

▲모집=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나는 학습클리닉’ 참가자=청소년

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신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일~21일 오후 2시 30분~4시 30분까지(총 4회·참가비 무료·20명 내외) 선착순 마감) 062-268-1388.

▲광주노인지도자대학 제28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남녀 누구나(선착순 60명), 모집 기간은 28일(금)까지, 입학 원서·증명자진 1매·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수업시간은 매주 수요일(2시간·수업료 무료·교재무료) 062-652-7374.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월 25일(화·1차), 3월 4일(2차), 오후 6시30분 ~ 9시, 광주대 호실관 7층 (707호) 양택, 음택, 수택, 나경·임한론, 비결로명당, 장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2014년 시민고전강좌 개강(수신)

제가치국평천하=과목은 논어(論語) 대학(大學), 시간은 8일(토·오후 3시~5시 연속강의) : 광주 YMCA 2층 울안(누구나 수강 가능) 010-3625-5433.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

=과목은 실내·실외 활동으로 친부모와 함께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